

뇌사 30대, 5명에 아름다운 나눔 후 하늘로 떠나다

광주 영어학원 강사 노연지씨

광주시내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받던 30대 영어강사가 뇌사판정을 받은 후 5명에게 새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에 따르면 노연지(33·사진)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광주 서구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전남대병원에 전원 됐으나 저산소성뇌손상으로 같은 달 21일 뇌사판정을 받고 22일 장기기증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 입원 중인 5명의 환자들에게 간장, 신장, 췌장 등을 이식했다.



노씨는 영어학원 강사로 활동 중이었으며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아이들과 동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수년 전 장기기증 서약을 했으며 교재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학원으로 이직, 강사로 활동 중이었다.

노씨 어머니는 “딸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후 기증받는 분 중 1명이 1~2세 가량의 아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한다”며 “딸의 심장이 이식돼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 숨 쉬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검 때문에 심장 이식이 안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또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기증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다”며 “비록 내 딸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딸의 일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저와 비슷한 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좋은 결정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김봉국 전남대 연구교수 '용재신진학술상' 수상



전남대학교 김봉국(사진) 연구교수가 연세대학교 용재기념사업회와 국학연구원이 수여하는 '용재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8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김 교수(호남학연구원)는 한국사회의 냉전 반공주의가 어떤 역사적 심연에 닿을 내리고 있는가에 착목하여 과거와 대화를 시도한 그의 저서 '냉전과 투쟁'이 학술적 인정을 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상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용재 백낙준 박사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뛰어난 학술적 성과를 낳은 국내외의 석학 및 학문 후속세대를 시상하는 제도로, 수상자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주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분단질서에 대한 성찰과 고려 없이는 한국사회의 평화와 공생을 향한 적절한 좌표 설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대신 유럽중심주의를 전제한 냉전 개념 자체에 대한 자연화를 해체하는 작업이 새로운 사회를 열고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과거를 대면하는 한국인들의 시선과 자세를 분석해 성찰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연세대에서 열린다.

김 교수는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현대사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 교수) 감성인문학연구단에서 역사학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월경과 통섭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학문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아파트연합회, 주민 권리찾기 선포식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지난 6일 상무지구 5·18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한재용 시회장을 재추대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회는 주민 권리찾기 선포식과 함께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업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이해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사진)

선포식에서 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 관련법을 지키고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부당한 업무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다짐과 공사와 각종 용역비를 'K-apt'에 공개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의 추진을 위해 표준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과 형식적인 각종 검사, 점검제도, 교육 횟수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기후변화를 대비해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조성, 재활용품 분류·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최선을 다해 정부의 탄소절약 정책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한재용 시회장은 “동대표들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위상을 높이고 공동체운동을 자발적으로 실천, 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자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일자리 협약식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 제대군인지원센터는 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국제 등 지역 제대군인 미채용 기업 13개사를 초청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일자리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협약식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 추천을, 기업은 제대군인 채용을 위한 우선적인 노력 협력을 약속했다.

김명주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에 도움되는 협약식 등을 자주 개최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강장욱 ㈜국제 대표는 “성실함과 유능함을 함께 가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채용은 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많은 제대군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기람 기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탄소중립 실천 협약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양미란)은 지난 7일 목포아이콥생활협동조합과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통해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목포아이콥생활협 업무체결 및 목포, 영암, 무안 지역 청소년기관 12개소와도 협약을 맺고 친환경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은 △자원순환 실천사업과 재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공동개발 △종이팩 생산 사용 권장 및 종이팩 회수 사업 지원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순환의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상호 협력이 필요한 4가지 사항 등이다.

박선옥 목포아이콥소비자생활협 이사장은 “생태계 확보를 위해 청소년기관과 함께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미란 원장은 “청소년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실생활에서 친환경 소비운동을 실천하도록 독려 하겠다”며 “생태계 보존활동으로 청소년기관과 함께 자원순환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호남대 사랑나눔센터-(사)토닥토닥 협약

호남대학교 사랑나눔센터(센터장 이무형)는 지난 7일 (사)토닥토닥(대표 김동석)과 대학생 사회봉사 체계적 실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사)토닥토닥토닥토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장애아동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단체다.

교내 IT스퀘어내 매직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호남대학교 이무형 사랑나눔센터장, 이동우 물리치료학과 교수,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남대와 (사)토닥토닥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시행, 봉사활동 홍보 및 기적의 마라톤 등 장애어린이가족에 대한 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병하 기자



법무공단 광주남부지소, 미용서비스 지원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8일 헤어샵태미와 '보호청소년 미용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에는 오상선(헤어샵태미) 대표, 최병훈(광주남부지소) 지소장, 김대현(취업선도위원회)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인 보호청소년의 미용서비스, 취업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되며 지역사회 보호청소년을 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상선 대표는 “미용이라는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훈 지소장은 “미용에 관심이 많은 보호청소년들이 다양한 미용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목포경찰, 학교밖청소년 대상 경찰학교 체험교육

목포경찰(서장 이준영)은 8일 학교 밖 센터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체험은 학생들 진로 관련 질문에 학교전담경찰관이 답변하고 장비·사격 체험, 과학수사·제복 체험을 함으로써 경찰 업무의 이해도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Advertisement for 'Local Newspaper Development Fund' (지역신문발전기금) for Jeonnam Ilbo, celebrating its 18th anniversary. The ad features the newspaper's logo and the text: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